

# 법원 “휠체어리프트 없는 시외버스는 장애인 차별”

광주장애인들, 7년만에 일부 승소  
신규 버스 도입시 순차적 설치  
회사 설치 비용 부담 주장 수용  
장애인단체 “차별 인정받아” 환영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갈 수 있는 권리’를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리프트)를 설치해달라며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한 지 7년만에 일부 승소했다. 국가와 광주시에 대한 청구는 차별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각됐지만, 금호익스프레스 측은 앞으로 신규로 도입하는 버스의 일정 비율만큼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야 한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20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 등 5명이 국가·금호고속(금호익스프레스)·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소송에 대해서 원고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호측에 단계적으로 신규 버스 도입할 때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2026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신규 도입 버스 중 5%, 2027년 8%, 2029년 20%, 2030년 35%,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공익변호사가 함께하는 동행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20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년만에 나온 소송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32년 50%, 2035년 75%, 2040년 100%의 최소 선을 그어주며 휠체어 리프트 설치 비용이 부담된다는 금호익스프레스 측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장애인들은 아쉬운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차별을 인정받았다는 점과 먼 미래를 고려하면 고무적이라는 입장이었다.

광주장애인철폐연대 측은 이날 광주지

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로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은 것과 승강장에 승하차 편의 제공이 되지 않은 것이 차별이고, 이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무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호고속이 매년 새로 도입하는 신규 버스는 10% 수준으로 사실상 앞으로 몇년 동안은 휠체어 리프트가 도입된 버스가

없는 상황은 마찬가지겠지만, 2040년에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원할 때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광주시, 운수회사(금호고속·금호익스프레스)에 대한 일부 청구는 기각해 원고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배영준 광주장애인철폐연대 활동가는

“7년동안 5명의 원고인이 광주시와 금호익스프레스,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광주시와 관련된 청구는 기각돼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가 교통약자이동증진계획을 추진하면서 그 안에는 리프트 설치 내용 또한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201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해 정부와 광주시, 운수회사를 상대로 고속·시외버스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요구해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운수회사 측은 좌석 수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를 말해왔고, 광주시는 버스회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반론해왔다.

이번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저상버스 미설치 차별 구제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아 7년만에 재개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해 차별은 인정하지만 리프트 설치에 대한 의무사항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1심 이후, 금호익스프레스 관계자는 “재판부에 대한 판결에 존중한다”며 “판결 검토 후, 공식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정유철 기자**

## 광주·전남 늦겨울 한파 이어져… 주말 최대 5cm 적설

“체감온도 뚝… 건강관리 유의”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상 우수가 지났지만, 광주·전남 지역에는 다음주 초반까지 늦겨울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이번 주말 최대 5cm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2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광주·전남 지역에 찬 북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다음주 월요일인 24일까지 평년보다 5도 가량 낮은 기온이 지속될 것이다.

21일부터 24일까지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영하 1도, 최고기온은 1도~7도로, 이 기간 동안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은 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6일부터는 서서히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

이번 주말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차량 운행 시 갑작스러운 등 눈길 교통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토요일인 22일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이날 오전 사이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이후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접어들다가, 일요일인 23일 이른 오전부터 밤 사이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 이틀간 최대 5cm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다음 주 초반까지 낮은 기온과 강한 바람이 예보돼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며 “건조한 대기상태가 지속되는 만큼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어, 산불과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준명 기자**

## 초등생 제자 학대한 전 야구부 감독… 항소심서 감형

초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에게 학대 행위를 일삼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30대 전직 감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야구 코치 A(36)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전남 소재 한 초등학교 야구부 부원 학생 4명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학생들의 경기력이 안좋

을 때마다 심한 욕설을 포함해 열차려를 주거나 공을 던져 맞추는 등 폭력까지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동을 지도할 때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더 세심해야 함에도 매일 3시간 이상 진행됐던 훈련에서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A씨의 아동학대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은 맞지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아동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 ‘업자에 금품 요구’ 순천시의회, 징역 2년 6개월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사업자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넘겨진 순천시의회에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0일 공갈·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시의회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해 4월 민원 편의를 대가로 태양광업자로부터 9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아파트 시공업자 대표에게 공사 진

행을 막겠다며 수차례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당 입당원서 작성과 관리당원 당비 납부 등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의원은 협박 혐의는 인정하되 공갈·강요·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구입한 뒤 차용을 받으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고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액수도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강요와 공갈은 없었

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순천시의회이자 시의회 도시 건설위원장이라는 공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를 협박해 한우선물세트 갈취부터 정당 권리당원 모집 강요, 뇌물수수 약속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뇌물을 주고받지 않고 약속에 그친 점,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 건설업체에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알선한 50대 구속

건설기술경력증 등 자격증을 알선한 50대 브로커가 구속됐다.

20일 광주 서부경찰은 건설기술진흥법·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건설기술자격증 소지자 70여명을 광주·전남지역 건설업체 90여곳에 알선한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설업 법령상 등록 요건을 갖추기 위해 건설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필수로 고용해야 하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격증 사본을 건설업체에 전달해 건당 100~300만원가량의 알선비용을 받고 자격증 대여자들에게 수익의 일부분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A씨의 소개로 자격증 사본을 받은 업체들은 기술자를 고용한 것처럼 직원 목록에 올렸으나 실제 현장에 배치하지 않

고 건설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월 ‘A씨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적이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 A씨에게 3차례 경찰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만 소개시켜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격증 대여자들에게 ‘실제로 건설업체에서 일했다고 말해야 한다’며 허위 진술을 유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도주와 재범 우려를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에게 자격증을 불법으로 넘겨준 기술자들과 건네받은 자격증을 사용한 지역 건설사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정성아 기자**

## 갓 태어난 송아지 돌보던 50대, 어미소에 공격받아 사망

보성에서 송아지를 돌보기 위해 축사 안으로 들어간 50대가 어미소의 공격을 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보성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40분께 보성군 노동면의 한 축사에서 ‘50대 여성 A씨가 소뿔에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축사 인근 주거지에 있던 그의 남편은 아무리 불러도 답이 없는 A씨에 이상함을 느껴 축사로 향했다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축사 주인인 A씨는 갓 태어난 송아지를 닦아주기 위해 홀로 축사 안으로 들어갔다가 출산을 마친 어미 소에 받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성아 기자**